



해양수산부

보 도 자 료

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30.(목) 조간 2022. 6. 29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6. 29.(수) 06:00
담당 부서 <총괄>	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	책임자	과 장 임채호 (051-400-4106)
		담당자	주무관 노재영 (051-400-4385)

이안류 감시는 늘리고, 해수욕객 걱정은 줄이고

- 국립해양조사원 고래불 등 10개 해수욕장 대상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 -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(원장 변재영)은 국민들이 이안류로부터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경북 고래불 해수욕장이 추가된 전국 10개 해수욕장*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(부산) 해운대, 송정, 임랑 / (강원) 경포, 낙산, 속초, 망산 / (충남) 대천 / (제주) 중문 / (경북) 고래불

이안류(離岸流)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돌아 나가는 흐름으로, 얕은 곳에 있던 해수욕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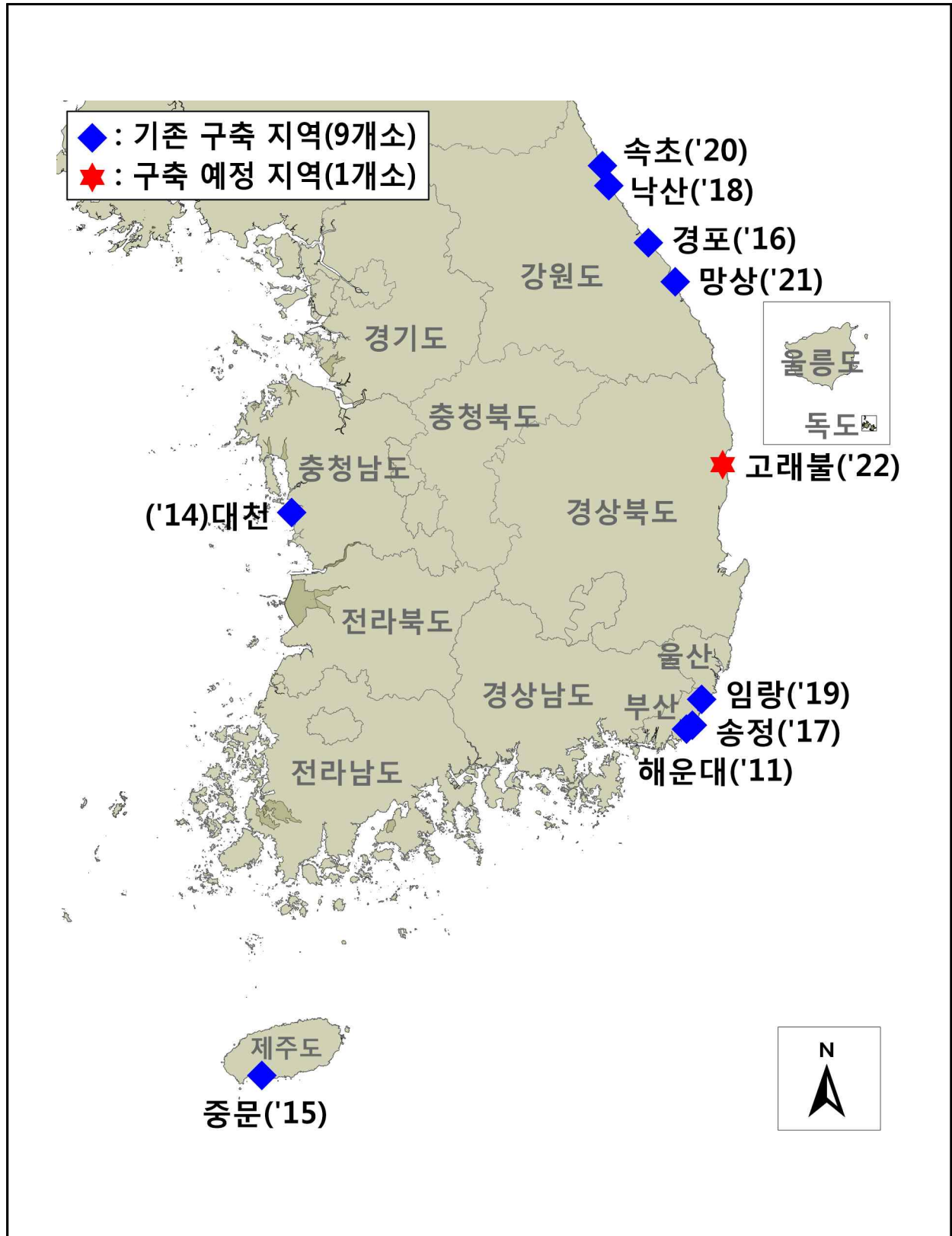
국립해양조사원은 2011년부터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이안류 지수*, CCTV 영상, 해양관측정보(파고, 조위, 수온 등) 등 이안류 안전정보를 유관 기관(지자체, 해양경찰청, 소방청 등)에 제공해 왔으며, 2020년부터는 정보 제공 대상을 대국민으로 확대**하여 이안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.

* 해양 관측·예측 자료를 분석하여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4단계(관심·주의·경계·위험)로 구분

**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(www.khoa.go.kr/oceangrid)과 앱(안전해)에서 이안류 안전정보 확인 가능

임채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 “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이안류 발생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이안류 걱정없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며, “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도 이안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	책임자	과 장 임채호 (051-400-4106)
		담당자	주무관 노재영 (051-400-4385)
	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	책임자	과 장 김백수 (051-400-4102)
		담당자	사무관 정은호 (051-400-4230)



□ 유관기관용



□ 대국민용

